

日本에 있어서의 開發計劃과 電氣通信 關聯研究

(財)電氣通信綜合研究所 常務理事
고마즈사끼 세이스케 (小松崎清介)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발전을 가능케한 것은 말할것도 없이 자유경제하에서 발휘된 뛰어난 일본 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그 배후에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이끈 Guide Line으로서의 정보의 개발계획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산업정책이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온 방식으로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의 개발계획의 역사는 3차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자에 들어와서는 점차로 정보화 정책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공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의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전기통신의 확충은 창업이래의 염원이었는데 사회 간접자본 속에서의 위치가 개선됨에 따라 급속하게 진전하여 지역개발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역 INS나 텔레토피아라는 형태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연구에 비교하면 극히 적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또 그 수급의 불균형이 나뉘었던 시대에는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희박했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사회과학적인 연구로서는 자금조달, 요금체계, 전기통신산업론 등이 전기통신사업체 속에서 다소 행해지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책정이 거듭되고 또 전기통신이 보급되어 사회에서의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점차로 사회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은 Electronics가 가속적으로 진보하여 New Media나 INS가 등장하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기통신분야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통신정책연구나 새로운 서비스, 또는 미디어에 관한 시장조사 등 다채로운 연구의 요청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부응하여 thinkbank나 대학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을 둘러싼 관련연구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성과가 크게 기대된다. 그와 동시에 전기통신관련연구에 관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적극화 되어가고 있어, 이러한 연구성과의 국제교류는 각국의 연구자 상호간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